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6.10.



Our Lady of the Rosary
Pray for Us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말씀 나눔

- 1) 말씀 듣기 : 마태 22,34-40(연중 제 30주일 복음)
-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 3) 말씀 나눔

<묵상 더하기>

- 하느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했던 적이 있었나요?
- 내가 먼저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4) 자유 기도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지난 30주년 바자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30주년 기도봉헌과 성경읽기/쓰기 봉헌, 특별히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성모님 순례에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11/2(월) 위령의 날 한국어 미사가 20:30분에 본성전에서 있습니다.
- 11/28(토) Homecoming day, 11/29(주일)에는 대림 1주일 미사 봉헌 이후, 전신자

대림시기 일일피정이 있습니다. 피정은 권선중 신부님께서 "상처와 치유"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실 것입니다.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사목단상

어렸을 때, 한 살 어린 여동생과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무조건 동생이 나쁘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여기며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었는데요, 자식들이 싸워서 혼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감히 생각해 보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서로 허구한 날 싸워대니 참 속상하셨겠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동생이랑은 싸우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동생이랑 싸움부터 멈추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에 온 율법의 정신이 달려 있다고 하시지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동생이랑 싸우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바리사이들은 정작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613개나 되는 계명을 하나하나 따지고 외우면서 지키는 데에는 철저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바리사이들의 모습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인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사도 빠지지 않고,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하고,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바리사이들의 형식만 중요시하고 그 정신은 잃어버린 모습과 다를 바 없겠지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상빈 알렉산델 신부님 묵상글 인용)